

“기본소득과나”

안재성

소설가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를 다종적으로 보게 된다.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딱 부러지게 웃고 그르다거나 좋고 나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어제의 악이 오늘의 선이 되는 꿀을 하도 많이 보아서인가, 세상 만사가 다 상대적으로 보이니, 특정 가치나 주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집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양쪽 다 이해하고 들어주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렇다. 전통적 의미의 계급적 속성이나 보수나 진보나 하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견해를 듣노라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쪽은 틀리다고 단정하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수긍하게 된다.

몇십 년 전인지 세어 보기도 힘든 오래 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다. 어렸을 때 우리집은 늘 침침했다. 아버지가 전기를 아끼려고 약한 전구만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전기, 전화, 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지 왜 돈을 받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철도청 임시공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도둑놈 심뿐냐? 전기, 전화를 공짜로 주면 다들 맘대로 엄청나게 낭비할 텐데 나라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

평생을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였다. 꼬박 33년을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작은 빌딩의 경비로 들어가 다시 20년을 근무하셨지만 생전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열렬한 보수파여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일당을 받아 오셨다. 만일 아버지께 기본소득에 대해 물었다면 펄쩍 뛰며 반대했을 것이다. 일해서 벌 생각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살겠다니 그게 무슨 도둑놈 심뽀냐고 말이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7, 8년은 된 것 같다. 친한 벗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였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한 친구가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데 나는 깜짝 놀랬다. 모든 국민이 일을 하든 하든 상관없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니, 듣자마자 대환영했다.

자리를 같이 한 다른 친구는 반대했다. 누구에게나 기본 생활비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려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받게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자기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기본소득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의 하나라고 비판해온 또 다른 친구도 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주면 계급적 불만이 완화되어 자본주의가 더욱 공고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약자들의 권익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지 개량적인 시혜로 얻으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자본주의가 강화된다는 원리주의자의 반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해도, 민주당 지지자의 우려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 같다. 기본소득 당의 활동을 알리는 언론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90%는 원색적인 비난이다. “왜 내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놀고 먹는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 같지만, “무슨 도둑놈 심뽀냐?”는 식의 혐오 댓글은 달라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내 주변인 중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이들이었다.

한 사람은 나의 사촌형이다. 사촌형은 노동자가 스물 남짓한 가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파다. 그런데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니 대단히 반겼다. 자기같은 영세기업주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전국민에게 기본수당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자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둔 중견기업의 대표이다.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인 분인데도,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로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늘어나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으니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렇듯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느냐 마느냐로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레 기본소득 개념을 상상했던 나는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내 발로 기본소득네트워크에 가입했고 기본소득당이 창당될 때는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도 나의 유일한 정치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만일 현재의 금전가치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책이 발의되면 솔직히 나는 반대할 것이다. 액수가 클수록 기본소득의 이념에 부합한다 해도, 그 정도 부담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던 노동운동의 구호를 자본가 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믿는 고루한 꼰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나라 전체의 부가 커진다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질병이나 실업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원천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약자나 임산부가 존재하기에, 이 나라 땅 안에 사는 한 그 누구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하자는 게 내가 가진 기본소득론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유는 사회보장 혜택의 기준을 심사하는 과정의 낭비와 불합리를 줄이자는 것이다. 어제의 사장이 내일 부도가 나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월급이 1만 원이 올라 기준을 넘었다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변동사항을 각자 신고해야 하고 수많은 공무원이 이를 개별 심사하는 짓이야말로 낭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인데, 나와 같은 기본소득당 당원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설득의 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말자. 행동은 함께 하되, 생각은 서로 다를수록 발전의 여지가 높아진다는 말은 사족일까?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

강은실

소박한 자유인 운영위원

나의 불행과 한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오랜 시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온 터여서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소소한 경험은 누군가의 소소한 경험들 속에 녹아날 만한 것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위 어디 쯤에 놓여 있을 뿐인데 무언가 써야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난감한 일이었다. 다만 이런 난감함은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내봤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매 분기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이름이 호명되고 게시되던 학생이었다. 어찌해서 들어간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여섯 살 많은 언니와 여덟 살 적은 막내 남동생을 포함한 여섯 형제 중 유일하게 초·중·고·대학교 학창 시절을 온전히(?) 보낸 유일한 형제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한탄 끝에 늘 따라오던 “내가 살아온 얘기만 써도 책 몇 권은 쓸 거다.”라는 얘기와 적절한 시기에 지지와 지원이 없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얘기는 나에게 늘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고 나의 역할이란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밖에 없었다. 물론, 가난한 시골이었고 부모님의 잊은 출타에 의해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각종의 노동 분담은 논외로 한다.

19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많은 이들처럼 나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곧 변화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열정과 결의에 차 있었다.

91년 소련 몰락의 여파로 학생운동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는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법·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학

생운동과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반강제적인 분리는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상황만을 과하게 해석하고 집착하게 했다. 예를 들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그런 것들이었다.

정신적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태로 그 이후 십여 년 이상을 생존하기에 급급해 살았다. 당장에 돌봐야 할 자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곤궁, 신뢰하는 커뮤니티가 없는 고립된 생활은 상당 기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결혼제도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까지 더해지면서 나는 내 안으로만 파고들었고 스스로 고립되어 갔다.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급급해 살다 보니 잊어지기도 했고 가끔씩 회한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살아지게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천상 주부가 되어 있었고, 개개인의 노력 정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힘든 가부장제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주부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빈곤과 사각지대로 바로 떨어지리라는 불안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이며 그렇게 유지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것을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주부들을 배제된 존재로, 정책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각성이었다.

나는 이 사회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으나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정책적 대상,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임노동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뻔뻔한 이 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싶었다.

가사노동을 임노동 관계에 편입시켜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투쟁은 그 착취구조가 무척 종족적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핵심축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단일하고 강력한 의제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힘겹더라도 싸우고 싶었던 이유는 체제 내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을 소거해 버리는 자본의 추악함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정당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소극적 제한을 둔 (피)선거권이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상식이 되기까지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권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인류가 이루한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적 이해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으며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공통부의 향유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경제적 독립(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빈곤의 해결(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관계는 선언에 그치고 만다. 적어도 과거의 유산을 공히 누리는 바탕 위에 현재의 노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부의 분배가 그러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제껏 자본의 위압과 허세에 눌려 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비밀이 어쩌면 자본주의를 한번 더 훈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레임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생산과정 전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자본주의 폐해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분배과정도 노동계급과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생산과정의 필수요소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일거에 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생산력은 숙련공이 아니라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 하는 지적 게으름과 무지함이 답답할 뿐이다.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이렇게 끝난다. 소소한 경험은 경험의 틀거리에 갇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빨려 들어 갈지라도 애써 이어 붙인 것은 서사와 담론의 간극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고만고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서사들이 모여 담론이 생기고, 그 담론에 의해 서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